



신 태 식
(본회이사, 경남도협의회장)

스스로 돕는 양돈인이 되자

「猪公司福 均播萬邦(돼지가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 와서 세계 곳곳에 골고루 나누어 준다)」
옛부터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살 정도로 돼지는 복을 전해 주는 재수(財數)있는 동물로서 인간에게 지극히 사랑을 받아 왔었다.

그리고 눈을 지긋이 감고 꿀 꿀 꿀 거리며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돼지의 모습은 평화스럽기 한이 없다.

또한 돼지를 기르면 돈을 번다고 양돈(養豚)을 양돈(養錢)이라고 까지 할 정도로 돼지가 부(富)의 상징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 도축장에 나가 보면 돼지의 천대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특히 돼지를 길러 출하하는 사람까지 천대를 받는 것 같다.

도대체 그렇게도 대우를 받던 돼지가 왜 천덕 꾸러기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생산농가의 무작정 증식으로 인한 생산과잉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생산자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입축산물이 저가로 대량 방출되어 국내생산 축산물의 소비를 둔화 내지 위축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유통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의 농간이 작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은 축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취급하여 과잉 단속으로 받는 수난도 간과 할 수는 없다. 어느 면으로 보나 양돈업계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으니, 우리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자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이는 조직을 통해서 만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불합리하고 불리한 정책이나 제도는 협회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리한 요소는 협동조합을 통하여 생산자에게 유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축산업을 수출산업의 희생 제물로 바친 정부의 정책들, 기업윤리는 현실팍처럼 팽개치고 돈만 벌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악덕 수입업체들, 기회만 있으면 폭리를 취하겠다고 생산자의 약점만 노리는 유통업자들, 이 모두가 우리 앞에 펼쳐진 험한 가시밭 길이다.

이 험한 가시밭 길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힘이 필요하다. 요즘은 우리 업계에서는 제 마음대로 여러 창구를 통하여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 하며, 이는 우리 업계의 장래에 커다란 위해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업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밖으로 나가는 목소리는 오직 하나이어야 한다.

힘은 한 곳으로 몰아야 커지고, 분산하면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회를 통한 힘의 결집만이 있을 뿐이다.

둘째, 돼지고기의 소비 창출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돼지고기의 소비 창출을 위해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좋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돼지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건강에 미치는 좋은 점 등을 저명한 학자에게 연구시켜 그 결과를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이상구 신드롬과 같이 소비에 나쁜 사태가 발생했을 시는 즉각 반박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 기반과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성을 조사·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품질의 고기를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며, 종돈능력 검정지표에도 이점을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돼지고기 요리법이 별로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요리법의 개발, 보급이 시급한 일이다.

이상 열거한 돼지고기 소비 창출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자조금제도가 하루 속히 입법화 되어 전양돈인이 이에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양돈업은 농촌소득원 중 두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했으며, 산업상 지위는 상당히 부각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양돈인들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부터 상당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지위로 올라 갈수록 남의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이니 더욱 겸손하고 검소한 자세가 요망된다.

우리의 힘으로 해태상사와 진주햄의 돈육통조림 수입을 저지시켰다. 또 제2공인 종돈능력검정소를 건립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무한한 저력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번 진주햄과의 원만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준 양돈인 동지들과 제2검정소 건립에 협찬해 주신 사료업계 및 회원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우리 양돈업계가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 25만 양돈인들이 규모간의 갈등을 말끔히 씻고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이다.

아무튼 흩어진 햇빛을 확대경으로 모아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25만 양돈인들의 흩어진 힘을 양돈협회로 몰아서 무서운 불꽃을 일으키고, 우리 앞길에 전개된 가시덩굴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고 영광된 양돈산업을 이룩하자. **■**